미국
콘텐츠 산업동향

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

한국콘텐츠진흥원
미국사무소

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

주간 심층이슈

『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슈퍼히어로 영화 분석』

◎ **작성취지**

- 마블사와 DC코믹스를 통해 코믹북의 역사를 살펴보며, 슈퍼히어로 캐릭터의 발전에서부터 할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 탄생 및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

◎ **작성순서**

- 들어가기
- 할리우드의 상업성과 슈퍼히어로 영화
- 정리 및 시사점

1. 들어가기

■ 코믹북의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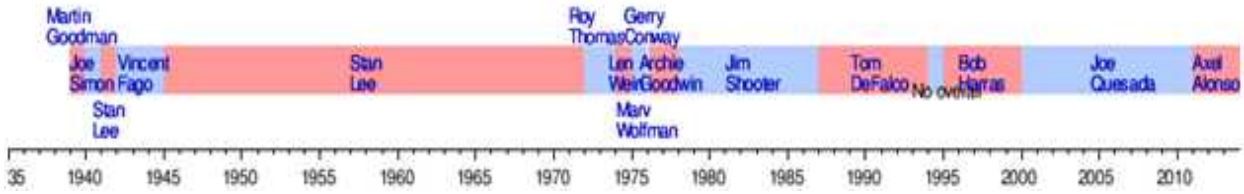
- 미국 코믹북의 역사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, 특히 세계2차 대전 중에는 많은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코믹북을 통해 등장함으로써 전쟁으로 지친 국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음
-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후 텔레비전과 다양한 종류의 책의 보급으로 코믹북은 1960년대까지 사양길로 접어듦
-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아트워크(art work)와 스토리 라인을 선보이자 독자들은 다시 코믹북을 찾기 시작하였고, 언더그라운드 코믹북이 등장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함

- 특히, 마블 코믹사에서 <판타스틱 4>(1961)가 나오고, DC 코믹스에서 슈퍼맨, 헐크, 엑스맨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됨
- 학문적·예술적 가치를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코믹북은 코믹북 자체뿐만 아니라 TV, 카툰, 그리고 할리우드의 중요한 영화 소재로 사용되며 큰 흥행으로 성공하게 됨
- 슈퍼히어로 코믹북은 미국 문화로 자리 잡고,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장르로 발전하여 할리우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로 발전하였음

슈퍼히어로 코믹북 마블과 DC 코믹스의 역사와 특성

마블

- 1939년 타임리 코믹스를 시작으로, 1950년 아틀라스 코믹스, 그리고 1961년 현재의 마블 코믹스를 설립하고 스탠 리를 중심으로 잭 커비, 스티브 디코 등과 함께 <Fantastic Four> 등 수많은 슈퍼히어로 코믹북을 발간하였음



- 마블코믹 역사에서 스탠 리의 공헌은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
- 2009년 월드 디즈니사로부터 42억 4,000만 달러에 인수되어 현재는 디즈니가 모기업이 되었음
- 영웅 캐릭터로서는 고스트 라이더, 데드풀, 데어데블, 미스터 판타스틱, 블랙 위도우, 블레이드, 비스트, 사이클롭스, 스파이더맨, 스톰, 실버 서퍼, 아이언 맨, 울버린, 진 그레이, 찰스 자비에, 캡틴 아메리카, 토르, 헐크, 호크아이 등이 있음
-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마블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무한한 소재를 가지고 있음
- 또한 뉴욕, 시카고, 로스앤젤레스 등 실제 도시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됨으로써 현실감이 크며, 특히 영화의 주제로써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DC 코믹스

- 1934년 내셔널 얼라이드 퍼블리케이션스로 출발, Detective Comics의 약자 DC 코믹스로 회사명을 바꾸고, 배트맨 등 수많은 캐릭터 등을 등장시켰음
- 현재 워너브라더스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으며, 마블과 더불어 80%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
- 영웅 캐릭터로서는 로빈, 배트맨, 시네스트로, 슈퍼맨, 원더 우먼, 캣우먼, 할 조던 등이 있으며, 악당 캐릭터로서는 미스터 프리즈, 라스 알 굴, 렉스 루터, 리들러, 스케어 크로우, 조커, 투페이스, 포이즌 아이비, 페럴렉스, 펭귄 등이 있음

- 정의에 기본을 둔 캐릭터와 주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공감하고 있으며, 특히 슈퍼맨과 배트맨은 코믹북의 캐릭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
- 슈퍼맨과 배트맨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믹북이며, 오랜 세월동안 코믹북 뿐만 아니라 영화, TV, 애니메이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호응을 받고 있으며,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행 소재로 인정받을 것임

2. 할리우드의 상업성과 슈퍼히어로 영화

-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은 흥행성적에 의해 매우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유형의 비즈니스로써 개봉 첫째 주와 둘째 주가 흥행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
- 대부분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많은 제작비용이 들어 위험부담이 있지만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그동안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, 지난 30여 년간의 흥행기록이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
- 또한 이런 영화들은 최고의 감독, 배우, 제작팀, 홍보, 그리고 배급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 최대한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공식을 가지고 있음
- 하지만, 흥행에 성공한 대부분의 슈퍼히어로 영화의 캐릭터들은 마블과 DC 코믹스의 캐릭터들로서 주로 대형제작과 배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편향성이 있음

Rank	Title	Studio	Lifetime Gross/Theater		Opening /Theaters		Date
1	The Dark Knight	WB	$533,345,358	4,366	$158,411,483	4,366	7/18/2008
2	Spider-Man	Sony	$403,706,375	3,876	$114,844,116	3,615	5/3/2002
3	Spider-Man 2	Sony	$373,585,825	4,166	$88,156,227	4,152	6/30/2004
4	Spider-Man 3	Sony	$336,530,303	4,324	$151,116,516	4,252	5/4/2007
5	Iron Man	Par.	$318,412,101	4,154	$98,618,668	4,105	5/2/2008
6	Iron Man 2	Par.	$312,433,331	4,390	$128,122,480	4,380	5/7/2010
7	The Incredibles	BV	$261,441,092	3,933	$70,467,623	3,933	11/5/2004
8	Batman	WB	$251,188,924	2,201	$40,489,746	2,194	6/23/1989
9	X-Men: The Last Stand	Fox	$234,362,462	3,714	$102,750,665	3,690	5/26/2006
10	Hancock	Sony	$227,946,274	3,965	$62,603,879	3,965	7/2/2008
11	X2: X-Men United	Fox	$214,949,694	3,749	$85,558,731	3,741	5/2/2003

12	Batman Begins	WB	$205,343,774	3,858	$48,745,440	3,858	6/15/2005
13	Superman Returns	WB	$200,081,192	4,065	$52,535,096	4,065	6/28/2006

<2억 달러 이상의 극장수익을 올린 슈퍼히어로 영화들, 1978-현재>

	Lifetime Gross	Theaters
Total (All Movies):	$ 8,613,359,753	-
Average (All Movies):	$ 97,879,088	2,585
Total (Wide Releases Only):	$ 8,556,724,962	-
Average (Wide Releases Only):	$ 105,638,580	2,806

<슈퍼히어로 영화들의 총수익, 1978-현재>

- 영화사들과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빠른 시일 내에 투자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데 있음
- 코믹북의 주제로 만든 영화들의 과거 30여 년간의 수익은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왔으므로 제작자, 투자자, 그리고 관객들이 기대하는 영화로 볼 수 있음
- 코믹북의 캐릭터와 스토리는 코믹북 마니아들을 비롯해 많은 관객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실패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
- 또한, 유례없이 높은 제작비용을 들여 제작하는 제작자, 투자자, 배급사들은 과거 성공사례에 의존하여 슈퍼히어로 영화의 제작에 적극적이라 볼 수 있음

<아이언맨 2> VS <그린랜턴>, 흥행과 실패의 분석

- 마블과 DC 코믹스의 비슷한 소재의 영화로 <아이언맨>과

<그린랜턴>이 비교되며 이 두 영화는 시리즈로 계속 제작되고 있음

Title	Comics books	제작비용	배급사	수익	개봉관수	첫주수익	개봉일
Iron Man 2	Marvel	$200 Mil	Paramount	$600 Mil	4390	$128 Mil	5/7/2010
Green Lantern	DC Comics	$200 Mil	Warner Bros	$200 Mil	3816	$53	6/17/2011

- <아이언맨 2>, <그린랜턴>은 제작비용, 주제, 호화 캐스팅 등 매우 비슷한 성격의 영화이지만 흥행면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, 스토리텔링과 관객의 호응도에도 차이가 있음
- <엑스맨>, <스파이더맨>과 비교해 <아이언맨>은 유명도가 떨어지지만,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영화로써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
- <아이언맨>의 영화 제작자는 코믹북 속의 캐릭터에 대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현실감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끌어냄
- <그린랜턴>은 <아이언맨>의 성공사례를 따르려 했던 것처럼 보이나 결국 워너브라더스의 스토리텔링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지 못함
- <그린랜턴>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스토리텔링에서 핵심적인 스토리보다 전후의 배경에 중심을 맞춰 관객들이 영화의 흐름과 중심을 이해하는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
- 슈퍼히어로의 주제는 악당과의 싸움에서 슈퍼히어로의 특별한 힘을 사용하여 악당들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는 것이 기본 공식이라 할 수 있으며,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함
- <아이언맨> 코믹북 팬들이 <그린랜턴> 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, 영화 관객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, 결국 흥행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스토리텔링에서 슈퍼히어로의 캐릭터, 스토리 그리고 관객의 호응도가 가장 큰 요소로 볼 수 있음

슈퍼히어로 영화에 대한 미국과 해외의 반응

- 평균 50:50(미국:해외)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, 이는 다른 종류 영화의 수익률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, 전통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- 미국의 코믹북을 통한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주제로 선과 악의 싸움에서 결국 선이 악을 이기며,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텔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제작자들이 즐겨 찾는 주제임
- 코믹북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에서도 흥행할 수 있는 이유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정서에도 맞다는 것임
- 영화제작 기술과 제작비용, 특히 CG(Computer Graphics) 기술의 발달은 코믹북의 스토리를 충분히 현실감 있도록 연출할 수 있게 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관객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기에 충분함

코믹북 슈퍼히어로 영화의 미래

-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슈퍼히어로 영화(1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 소요)들이 개봉하게 되며 현재 제작중이거나 앞으로 제작할 영화들을 볼 때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짐
- 디즈니는 마블을 4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많은 영화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, 워너브라더스 역시 DC 코믹스 영화제작을 계획하고 있음
- 이로써 코믹북 중심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
- 또한, 9/11 사건 이후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이 제작된 것도 안전, 보호, 그리고 강한 이미지를 기대하는 미국인의 정서에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- 코믹북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코믹콘, 원더콘과 같은 컨벤션들이 유례없이 큰 각광을 받는 것 또한 앞으로의 추세를 충분히 예측할

수 있다고 봄

슈퍼히어로 캐릭터의 상품화와 로얄티

- 리마(Licensing Industry Merchandisers' Assn.)에 의하면 전반적인 상품화에 대한 로얄티 수익은 2010년 약 1.9% 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그 중 47%에 달하는 캐릭터 상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
- 대형 스튜디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, 최근 워너브라더스의 DC 코믹스는 아디다스와 파트너쉽을 체결, 슈퍼맨 캐릭터를 NBA의 드웨이트 하워드와 같은 슈퍼스타를 통해 신발, 옷, 엑션피겨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

- 슈퍼히어로들은 특별한 복장, 무기, 장비, 그리고 초능력을 보유한 캐릭터들로써 장난감, 액션피겨를 상품화하는 하스브로, 레고, 마텔 등과 같은 소형 체인 스토어부터 대형 체인 스토어 월마트, 토이스알어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음
- 또한 수집가들과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있음

제작 중이거나 앞으로 제작할 슈퍼히어로 캐릭터의 영화들

- 다음 영화들의 공통점들은 3D 제작, 1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되었으며, 대부분 시퀄로 제작되었고 흥행에 성공하였음
- The Avengers (Marvel)

- 2012년 4월 25일 개봉했으며, 2억 2,000만 달러의 제작비,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, 크리스 에반스, 스칼렛 요한슨, 제레미 레너 등이 출연함

– The Amazing Spider-Man (Marvel)
- 2012년 7월 3일 개봉 예정이며, 앤드류 가필드, 엠마 스톤, 리스 아이판스, 이르판 칸 등이 출연함

– Iron Man 3 (Marvel)
- 2013년 5월 개봉 예정이며, 스칼렛 요한슨,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, 기네스 펠트로, 돈 치들 등 전편의 주요 캐스팅들이 출연함

– Wolverine (Marvel)
- 2013년 7월 23일 개봉 예정이며, 휴 잭맨이 출연하며, 일본에서 사무라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– The Dark Knight Rises (DC Comics)
- 2012년 7월 19일 개봉 예정이며, 2억 5,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되며, 크리스찬 베일, 죠셉 고든-레빗, 개리 올드만, 마이클 캐인 등이 출연함

– Man of Steel (DC Comics) – 수퍼맨 시리즈
- 2013년 6월 13일 개봉 예정이며, 1억 7,500억 달러의 제작비, 헨리 캐빌, 에이미 아담스, 러셀 크로우, 케빈 코스트너 등이 출연함

– Batman Reboot (DC Comics)
- 2015년 개봉 예정

3. 정리 및 시사점

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성공하는 중요한 요인들

– 주제와 소재가 코믹북 등을 통해 미리 어느 정도 검증됨

–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세계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룸

-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의 초능력적인 힘과 특별한 복장, 무기, 때로는 첨단과학 장비들의 출현으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어냄
-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의 대부분은 시퀄로 제작함
- 영화제작기술의 발달로 2D/3D제작, 현실감을 더해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음
- 높은 제작비로 최고의 감독, 배우, 홍보, 그리고 대량의 배급을 함

슈퍼히어로 영화들의 추세와 시사점

- 영화사, 투자자, 배급사의 공통 관심사인 수익창출에서 슈퍼히어로의 영화의 흥행기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
- 80% 이상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을 두 대형 스튜디오가 보유함으로써 이들을 중심으로 영화가 제작/배급되는 편향성이 있는 단점이 있음
- 영화산업 역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관객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제작/배급하는 할리우드의 노하우와 역사가 시사점이 크다고 봄